

이인상(李麟祥)의 <구담소기(龜潭小記)> 연구

김민영*

- I. 서론
- II. <구담소기>의 창작배경
- III. 공간 중심의 형식과 구성
- IV. 구담에 관한 기억과 기대
- V. 결론

<국문초록>

<구담소기(龜潭小記)>는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이 각별히 애호했던 단양의 구담을 소재로 지은 기문이다. 이인상은 구담에 은거하는 삶을 구상하며 그곳에 다백운루(多白雲樓)를 지을 만큼 구담을 사랑하였고, 부정(桴亭)을 만들어 물길을 오르내리며 구담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구담이 중화(中和)를 지향하는 자신의 미의식에 부합하며 세속과 어느 정도 유리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구담을 애호하였다.

<구담소기>는 여행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유기와 달리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수기이다. 조선후기 산수기에서 성행하였던 조합식(組合式) 방식을 차용하면서도 공간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변용하고 있다. 이인상은 경물을 호명/명명하는 방식으로 구담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개인적 추억을 환기하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뚜렷이 드러낸다. 아울러 조출한 삶에 대한 설렘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다짐 등 구담에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이처럼 <구담소기>는 여행 체험을 기록하거나 산수를 소개하거나 산수를 비평하는 대다수 산수기와는 달리, 구담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환기하여 대상 공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의식과 삶의 지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산수기라는 점에서 개성을 지닌다. 이는 산수기라는 문체를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핵심어 : 구담소기(龜潭小記),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산수기(山水記).

1. 서론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시문은 오래도록 서화 연구의 참고자료 정도로 간주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 비로소 문학 작품으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 그 후 간행본 『능호집(凌壺集)』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을 풍부하게 신고 있는 필사본 『뇌상관고(雷象觀藁)』가 발견되면서 이인상의 문학은 더욱 그 다채로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²⁾ 선행연구에서는 이인상과 그 벗들을 조선후기 문예사의 중요한 집단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을 ‘단호(丹壺) 그룹’이라 명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들 그룹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도 차츰 축적되고 있다.³⁾ 최근에는 드디어 『능호집』의 완역본이 출간

1) 이인상의 문학을 다룬 초기의 연구성과로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한국한문학회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의 문학과 회화에 대한 일고찰—시대인식과의 관련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등이 있다.

2) 『뇌상관고』는 김수진, 「가장본 『뇌상관고』 소고」(『한국문화』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에서 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후 김민영, 「능호관 이인상 산문 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 문학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박혜숙, 「이인상의 『관매기(觀梅記)』 연구」(『한국학연구』 4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등에서 『뇌상관고』 수록작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3) ‘단호 그룹’은 이윤영(李胤永)의 호 ‘단릉(丹陵)’과 이인상의 호 ‘능호관’에서 한 글자씩을 취한 이름이다. 이 그룹의 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백승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사(哀辭)에 대한 고찰」(『한국한문학회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강혜선, 「이인상 그룹의 교유양상

되기도 하였다.⁴⁾

이인상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그의 산수기(山水記)에 주목하였다. 이인상은 유별난 산수 취미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십여 편의 산수기를 남기기도 하였다.⁵⁾ 특히 시점의 이동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산수의 형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점과 산수에 자신의 심회를 투사하고 있는 점이 이인상 산수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거론되었다.⁶⁾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이인상 문학을 개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그의 산수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까닭에, 개성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인상이 애호했던 여러 산수 공간 가운데 단양, 그중에서도 구담(龜潭)은 그의 삶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다. 이인상은 구담에 은거하는 삶을 구상하며 누각을 짓기도 할 만큼 구담을 사랑하였고, 뗏목 위에 초정을 세워 만든 ‘부정(桴亭)’으로 물을 오르내리며 구담의 곳곳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부정을 고안하게 된 사정과 부정을 타고 본 구담 풍경을 <부정기(桴亭記)>에 담아내고, 그 글의 말미에 <구담소기(龜潭小記)>와 시 39수를 붙이노라고 부기하였다.⁷⁾

이인상의 삶에서 구담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구담과 <구담소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한 선행연구는 <부정기>의 분석을 통해, 이인상이 구담을 ‘속세와 초월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고 논한 바 있다.⁸⁾ 이는 <부정기>

과 시서화 활동 연구」(『한국한시연구』 24, 한국한시학회, 2016) 등이 있다. 단호 그룹이라는 명명에 대해서는 김수진, 위의 논문, 2012, 169면 참조.

4) 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상·하, 돌베개, 2016.

5) 『뇌상관고』는 기문류(記文類)를 기(記)·유기(遊記)·잡기(雜記)로 세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유기로 분류된 글은 <游三清洞記>, <游太白山記>, <鳳屯山潮汐水記>, <錦山記>, <游統營記>, <桐華寺記>, <觀上聳中菴記>, <牛頭山記>, <鳥嶺漱玉瀑布記>, <華陽洞記>, <海滋小記>, <天壺山遊記>, <遊雙樹山亭記> 등 모두 13편이다. 유람의 목적과 장소에 따라 글에서 산수 공간이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산수를 다루고 있다. 기로 분류된 <桴亭記>와 <龜潭小記> 또한 산수 공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산수기라 할 수 있다.

6) 김민영, 앞의 논문, 2012, 69~80면; 김수진, 앞의 논문, 2012, 130~141면;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그 인간과 문학』(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505~507면.

7) “余觀龜潭而竊有所感焉, 遂作龜潭小記二十八段, 而係之小詩三十八首, 以示同好者.” 李麟祥, 『桴亭記』, 『凌壺集』 卷3.

8) 김수진, 앞의 논문, 2012, 141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논한다.

에 한정하면 적실한 지적이지만, 이인상이 구담에 부여하는 공간적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기>와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창작된 <구담소기>를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구담소기>에서 이인상이 이황(李滉)·김창협(金昌協) 등의 시를 빈번히 인용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가 구담에서 선배 처사들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이 역시 이인상이 구담에 부여하는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가 구담에 부여하는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담소기>의 전모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담소기>는 이인상의 삶에서 구담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일 뿐 아니라, 사군(四郡) 산수기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빈칸을 메우는 작품이다. 조선시대 청풍·단양·영춘·제천은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 높았던 지역으로서 흔히 ‘사군’으로 병칭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사군 유람의 열풍이 불면서 사군에 대한 산수기가 다량으로 창작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사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군 산수기를 통시적으로 살핀 한 연구에서는 18세기 중후반에 사군 산수기가 가장 흥성하였으며 특히 이 무렵 이윤영과 이인상이 사군 유람의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고 보았다.¹⁰⁾ 그런데 해당 연구는 이윤영의 경우 그의 단양 산수기 모음집인 『산사(山史)』를 분석하였으나, 이인상에 대해서는 사인암에 새긴 제명(題名) 등과 같이 단양 유람의 방증 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단양에 대한 산수기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이는 <구담소기>가 『능호집』에 누락됨으로써 그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구담소기>의 전모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사군 산수기의 전통을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점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구담소기>는 1751년에 창작된 작품인바, 이 시기 산수기의 맥락 또한 유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18세기 산수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인상적 장면을 짧은 필치로 담아내는 소품체(小品體) 유기(遊記)의 성행이 자주 거론된다. <구담소기> 또한 이 시기 소품체 유기에서 흔히 보이는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작자의 미의식과 글의 목적에 맞게 이를

9) 김민영, 앞의 논문, 2012, 52~53면.

10) 이태희, 『조선시대 사군 산수유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5, 49~77면.

변용하고 있는데, 이에 주목하여 <구담소기>를 분석하면 18세기 산수기의 전개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구담소기>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산수기 및 비슷한 공간을 대상으로 창작된 산수기를 의식하면서 <구담소기>가 이들과 어떠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 그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독자적 개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인상의 미적 지향과 가치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산수기라는 문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구담소기>의 창작배경

단양은 조선시대에 일찍이 명승지로 자리매김한 곳이었다. 김일손(金駟孫)의 <이요루기(二樂樓記)>, 임제광(林霽光)의 <단양산수가유자기(丹陽山水可遊者記)>, 이황의 <단양산수가유자속기(丹陽山水可遊者續記)> 등이 일찍부터 단양 산수기의 전범(典範)으로 인식되었고, 그 후로도 김수항(金壽恒), 권상하(權尙夏), 김창협, 조귀명(趙龜命) 등 많은 문인들이 단양을 유람하고 시문을 창작하였다.¹¹⁾ 이인상 또한 사인암과 도담삼봉(嶋潭三峯) 등 단양의 경승을 두루 아꼈으며, 특히 구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노닐을 마치고자 구상하고 실제 ‘다백운루(多白雲樓)’라는 누각을 지을 만큼 깊은 애정을 보였다.

이인상의 구담 애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이윤영의 <운담서루기(雲潭書樓記)>에서 간취할 수 있다.

원령(元靈·이인상의 자-인용자)은 고매한 식견으로 사물에 대해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산수에 있어서는 더욱 남다른 이해가 있다. 약관(弱冠)부터 사방으로 나가 유람하더니 구담에 두 번째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곳에서 생을 마칠 뜻을 가지게 되었다. 무릇 구담의 아름다움은 비록 사람들마다 보고 말하지만,

11) 단양 산수기의 전통에 대해서는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116~121면 참조. 사군 산수기의 전통에 대해서는 이태희, 앞의 논문, 2015 참조.

과연 능히 원령처럼 참으로 알고 참으로 즐기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¹²⁾

이 말에 따르면 이인상은 20대부터 산수를 유람하다가 구담을 재차 방문하고는 구담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듯하다. 그는 34세이던 1743년 가을에 벗 송문흠(宋文欽) 및 단양 군수 이규진(李奎鎭)과 구담에서 뱃놀이를 하고 시를 지었으며¹³⁾ 1744년에는 구담 인근의 능강동(凌江洞)에 사는 자신의 벗이자 동서 신사보(申思輔)를 방문하기도 하였다.¹⁴⁾ 이 두 건은 이인상의 구담 유람과 관련하여 『뇌상관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기록이다. 아마도 이 이후 이인상은 구담에서 생을 마칠 뜻을 가지게 된 듯하다.

구담을 유람한 것이 아니라 언급한 기록으로 말하면, 이보다 몇 년 빠른 1738년 서울로 찾아온 신사보와 함께 지은 시에서 이미 확인된다. 해당 시에서 이인상은 “그대와 함께 구담 가에 발을 씻으며 / 갈필(葛筆)로 너럭바위에 『벌목(伐木)』시 쓰길 기약하네”(期君濯足龜潭上, 墨葛書磐伐木章)라고 하였다.¹⁵⁾ 이를 보면 그가 일찍이 20대 후반부터 구담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인상이 산수 은거를 꿈꾼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앞서 이운영의 기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인상은 본디부터 산수에 대해 높은 식견을 지녔으며 산수를 몹시 애호하였다. 그는 평소 자기 시대의 대내외적 정치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의 현실을 떠나 산수에 은거하기를 더더욱 꿈꾸었으리라 생각된다.¹⁶⁾ 아울러 이즈음 여러 해 동안 이인상은 낮은 벼슬자리를 옮겨 다니고 있었다.¹⁷⁾ 개인사적으로 보면 이 권태롭고

12) “元靈以高見卓識，於物無所不通。然其於山水，尤有所神解者。自弱冠出遊四方，再到龜潭，始有終焉之志。夫龜潭之美，雖人人見而言之，然其果能真知而真樂之如元靈者，幾何人哉?” 李胤永, 『雲潭書樓記』, 『丹陵遺稿』 卷11.

13) “癸亥秋，與宋子士行游丹陽，所過峰壁，多標名以紀之。丹陽太守今樂墅李公終始接濟游事，風流洪長，爲之並舟下龜潭，飲於沙頭，極歡而歸。” 李麟祥, 『山泉亭記事』, 『陵壺集』 卷4.

14) 이 때 지은 시 『凌江洞，共子翊賦』가 『陵壺集』 卷1에 보인다. 자익(子翊)은 신사보의 자이다.

15) 李麟祥, 『峽友子翊思輔來訪共賦』, 제2수, 『陵壺集』 卷1; 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상, 돌베개, 2016, 62면.

16) 이인상의 비판적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김민영, 앞의 논문, 2012, 16~26면; 김수진, 앞의 논문, 2012, 60~67면;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그 인간과 문학』, 위의 책, 2016, 463~466면 참조.

17) 1739년 북부 참봉(北部參奉, 종9품)에 처음 제수된 이후 1745년까지 전옥서 봉사(典獄署奉事, 종8품),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종7품),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종6품),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종6품) 등을 역임했다.

전망 없는 말단관료 생활의 현실 또한 산수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으리라 짐작된다.¹⁸⁾

이인상은 1747년 경남 함양 사근역(沙斤驛) 찰방(察訪)에 제수되면서 처음 외직으로 나가게 되고, 1750년 4월에는 음죽 현감(陰竹縣監)에 제수되어 같은 해 8월에 부임하였다.¹⁹⁾ 음죽 현감으로 재직하던 무렵에 그는 비로소 구담에 다백운루를 짓게 되었다.²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거주할 만한 곳은 남들이 벌써 차지한 탓에 거친 산등성이에 입지를 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마저도 남들이 비웃으리만큼 작고 영성한 누각이었다고 한다.²¹⁾ 다백운루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인상은 한곳에 앉아서 구담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정을 고안하기에 이른다. <부정기>와 <구담소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로소 창작되었다.

이인상이 은거 공간으로서 하필 구담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유람했던 여러 아름다운 산수 공간 가운데 구담의 무엇이 그를 사로잡은 것일까? 앞서 약속한 대로 이인상은 <부정기>에서 부정을 만든 사정을 서술하고 부정을 타고 감상한 구담의 풍경을 묘사한 다음, 글의 말미에 ‘구담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 <구담소기> 28단(段)을 짓고 거기에 시 38수

18) 이인상은 31세이던 1740년 전옥서에서 숙직하던 중 송문흠에게 보낸 시에 “우두커니 앉아 밤을 보내나니 / 어제와 오늘이 같네 / 관서(官署) 남쪽엔 흰 구름 많아 / 변멸(變滅)하며 몽게 몽게 솟아오르네 / 이를 바라보는 어찌서인가? / 마음에 슬픔이 많아서라네”(猶然坐窮夕, 昨日如今日。樓南多白雲, 變滅氣嶙峋。注目竟何爲? 此懷多悲辛)라고 하였다.(李麟祥, 『獄司直中偶書, 簡宋子士行』, 『雷象觀彙』 卷1. 번역은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그 인간과 문학』, 앞의 책, 2016, 459~460면.) 이 시에서는 하급관리로서 관청에서 숙직하며 밤을 보내는 무료함과 처량함이 느껴진다. 한편 말직이나마 이미 제수 받은 자리조차도 서열이라는 이유로 그보다 못한 자리와 바뀌는 일이 거듭되었는데(유승민, 『凌壺觀 李麟祥 書藝와 繪畫의 書畫史의 位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6, 11~13면) 이를 생각하면 서울에서의 관직생활이 한층 팍팍하게 느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19) 사근역 찰방과 음죽 현감은 모두 중6품에 속하는 지방 말단 기관장이다. 음죽현은 지금의 경기 이천과 충북 음성에 걸쳐 있던 지역이다.

20) 『雷象觀彙』 卷5의 『又祭亡室文』에 “내가 설성(雪城: 음죽의 별칭) 현감으로 있을 때 비로소 구담을 경영하였다(余宰于雪城, 始營龜潭)” 하였고, 1751년에 지은 『桴亭記』에 “내 일찍이 구담의 남쪽 언덕에 작은 누각을 지어 거처하였다(余嘗築小樓于潭之南岸而居之)” 하였으므로, 다백운루는 음죽에 부임한 1750년 8월 이후부터 1751년 『桴亭記』를 짓기 전까지의 어느 시점에 지었을 것이다.

21) “元靈家貧無錢, 不可以買山, 而龜潭之可居者曰可隱曰長淮, 已爲人所占. 故不得已以雲潭爲歸. (… 此荒岡斷麓之上, 欹樓一面入望愁寂者, 有以見元靈之高也.” 李胤永, 『雲潭書樓記』, 『丹陵遺稿』 卷11: “標樓曰多白雲, 樓固樸斷而矮陋, 過者笑之.” 李麟祥, 『多白雲樓記』, 『凌壺集』 卷3.

를 붙여 동호인(同好人)에게 보인다'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다.²²⁾ 그리고 <구담소기>는 과연 <부정기>에 바로 뒤이어 실려 있다. 이러한 존재방식으로 볼 때 <부정기>는 내용상 <구담소기>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상이 구담을 혹애한 까닭 역시 <부정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①용정(龍頂) 해문(海門)으로부터 동쪽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 골짜기 사이로 오백 리를 지나면 수세(水勢)가 점점 높아지거늘, 평지에서 보면 그 쌓인 물의 깊이가 몇 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②산은 오대산(五臺山)에서부터 물을 끼고 서쪽으로 치달아 구불구불 구군(九郡)을 지나는데, 용문산(龍門山)에 이르러서는 야트막해져 언덕과 같다. ③산은 물려들고 골짜기는 좁아져 물이 넘실넘실 흐르기를 그치지 않아 대탄(大灘)에서 위세를 떨치고 두미(斗尾)에서 휘도는데, 서쪽으로 서울 어귀를 바라보면 온갖 산봉우리가 우뚝하고 빛나는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지만 세속의 티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④오백 리를 지나면 산세(山勢)가 그윽하고 험하며, 오백 리를 내려오면 수성(水性)이 느리고 탁해지니, 대개 중화(中和)의 기운이 맺혀 사군(四郡)에 이르며, 구담(龜潭)에 이르러서는 강산(江山)이 맑고도 장엄하여 사람을 슬프게도 기쁘게도 한다.²³⁾

인용문은 <부정기>의 서두에서 구담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인상은 ①에서 먼저 한강 하구에서부터 동쪽으로 연결되는 수세를 크게 그은 다음, ②에서는 반대로 강원도 오대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산세를 다시 한 번 크게 긋는다. 그런 다음 ③에서는 산줄기와 강줄기가 교차하는 경기권역의 대탄(大灘 한여울)과 두미(斗尾 도미나루)를 묘사하고, 그곳이 여전히 세속의 티끌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④에 이르러 드디어 사군의 구담이 언급된다. 그로부터 오백 리를 더 지나 오대산에 이르면 산세가 험해지고, 그로부터 오백 리를 더 내려가 한강 하류에 이르면

22) 주석 7) 참조.

23) “自龍頂海門溯流而東，穿峽五百里，水勢漸高，量以平地，積毫累銖，絕塵不知其幾丈矣。山自五臺夾水西馳，灑迤九郡，至于龍門，其卑如坻矣。山轉峽束，而水奔跌不已，震于大灘，輾于斗尾，而西望京口，萬峰峩峩，光氣滿空，然猶不能離塵矣。過五百里，則山勢幽險，下五百里，則水性緩濁，蓋中氣滯結而極于四郡，至于龜潭而江山清壯，令人悲喜。”李麟祥，「桴亭記」，『凌壺集』卷3: 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113~114면.

수성이 느리고 탁해지는 곳, 바로 그 어름에 자리하여 중화(中和)의 기운이 맺혀 이른 곳이 사군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구담의 강산은 맑고 장엄하여 정서적 감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화의 기운’이 맺혀 사군에 이른다는 말은 이인상이 이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원문의 ‘中氣’는 ‘중화의 기운[中和之氣]’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중화(中和)’는 곧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용(中庸)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 글의 맥락에서는 사군이 산세와 수세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조화의 공간이라 말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것에서 ‘중화’의 미덕을 찾는 것은 이인상과 이운영이 공유하는 미의식이다. 이운영은 1739년 이인상과 함께 연꽃을 감상하면서 연꽃이 ‘중화의 덕’을 보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²⁴⁾ 이인상 또한 경쇠소리를 예찬하면서 ‘중화의 기운’과 아름다움을 연결 지어 말하기도 하였다.²⁵⁾ 이러한 미의식은 이들이 공간을 보는 시선에도 적용된다. 이운영이 산수를 보는 시각에서 중정(中正)과 조화를 지향하고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²⁶⁾ 이인상은 이와 같은 미의식을 바탕으로 사군이라는 공간에 ‘중화’의 의미를 더욱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군의 구담은 조화를 지향하는 이인상의 미의식에 부합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속세와 유리된 곳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제시한 <부정기>의 서두에서 이인상은 사군의 구담이 경기권역의 대탄·두미와는 달리 세속의 티끌을 벗어난 곳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①과 ④에서 한강 하구로부터 구담까지의 거리가 ‘오백 리’임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흔히 ‘경기(京畿)’라고 할 때 ‘기(畿)’는 본래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천 리의 땅을 말한다. 요컨대 ‘서울로부터 오백 리’는 기(畿)의 내외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리이다. 이렇게 보면 구담은 서울로 대표되는 세속의 영향력을 벗어난 곳이면서도, 서울과 너무 멀어져 궁벽한 지경에

24) “胤之曰：‘夫蓮之碧葉朱花，白本玄實，備四時之氣，必開花於夏秋之交天中之節，蓋花之兼五行之性，而全中和之德者也。’” 李胤永，『西池賞荷記』，『丹陵遺稿』卷12.

25) “清深微遠，動盪血脈，得其中和之氣，令人鼓之而體逸，聽之而無數者，其惟磬聲。” 李麟祥，『磬心亭記』，『凌壺集』卷3; 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120면.

26) 박경남, 『단릉 이운영의 『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68~74면.

이르지는 않은, 그 ‘경계’에 위치한 곳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논한 대로 구담을 ‘현실과 초월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IV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III. 공간 중심의 형식과 구성

한문 문체에 관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여행자가 직접 경험한 것의 기록이 ‘유기’이며, 산수를 묘사했다라도 작자가 직접 여행해서 본 것이 아니면 ‘산수기’로 칭한다고 논한 바 있다.²⁷⁾ 산수기의 장르 특성을 고찰한 다른 연구에서는, ‘산수기’라는 말에 ‘遊’자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수에 노닌 기록’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산수유기’보다 간명한 ‘산수기’가 장르명칭으로서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논의들은 산수를 다룬 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인간이 산수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유람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담소기> 같은 작품에 적용하기에는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구담소기>는 산수 공간을 다루고 있는 글이므로 문자 그대로 ‘산수기’이지만 ‘유기’로서의 속성은 옳다. 달리 말하면 <구담소기>에는 산수에 대한 서술은 풍부하지만 유람 행위를 나타내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유기’ 혹은 ‘산수유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산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뇌상관고』의 문체 분류에 유기가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담소기>가 기(記)로 분류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담소기>의 서두를 들어본다.

- ① 산은 상악산(上嶽山)에서 나뉘어 북쪽으로 내달려 다섯 골짜기가 되고 금수산(錦繡山)의 여러 봉우리가 된다. 구담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로 7리

27) 진필상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102면.

28) 박희병, 『한국산수기 연구-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212면.

를 가서 백운동(白雲洞)에 다다르면 웅장하여 볼 만한 폭포가 있는데 상악 폭포라고 한다. 산등성이의 뒤쪽이 곧 구담이니, 강의 수원(水源)이 처음 변전(變轉)하는 곳이다.²⁹⁾

보다시피 <구담소기>의 도입부에는 일반적인 유기의 도입부에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여행의 목적과 동행, 여정에 대한 소개 따위가 보이지 않는다. 비단 도입부에서뿐만 아니라 <구담소기>의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실상 <구담소기>에는 구체적인 시간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담이 이인상에게 일회성 여행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반복적·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경험해 갈 공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인상은 여행자의 시선에서 특정 순간의 구담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에 가까운 시선에서 구담을 바라보고 있다. 이인상이 구담에 다백운루를 지었다고 해서 그곳에 상주했던 것은 아니지만³⁰⁾ 그가 구담을 경험하는 방식은 보통의 유람객이 유람지를 접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심화된 차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담소기>는 유기보다 오히려 복거기(卜居記)와 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덕수(李德壽)의 <벽계기(蘖溪記)>, 김신겸(金信謙)의 <행정제승기(杏亭諸勝記)>, 강규환(姜奎煥)의 <백운동기(白雲洞記)>, 남공철(南公轍)의 <둔촌제승기(遁村諸勝記)> 등과 같은 작품은 유람객의 시선이 아니라 거주민의 시선에서 주위 환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기문으로서 <구담소기>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구담소기>에는 여행의 서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글의 형식과 구성은 자연스레 공간을 위주로 짜여 있다. <구담소기>의 원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앞서 <부정기>에서 <구담소기>를 ‘28단(段)’이라 일컬은 데서 알 수 있듯 이 글에 단락 구분이 있다는 점이다. <구담소기>는 이처럼

29) “山分上嶽，而北走爲五洞，爲錦繡諸峯。沿龜潭而下，右行七里，窮白雲洞，有瀑壯偉可觀者，曰上嶽瀑。山之背卽龜潭，江源之始轉處。”李麟祥，『龜潭小記』，『雷象觀藁』卷4。李麟祥，『龜潭小記』，『雷象觀藁』권4. 이후 <구담소기>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지사항 표기를 생략한다.

30) 이인상은 <다백운루기>에서 ‘구담 가에 누각을 세워 일 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余得起樓於龜潭之上，能得歲一至焉)라고 하였다. 李麟祥，『多白雲樓記』，『凌壺集』卷3.

럼 단형(段形)을 취하여 개별 공간을 독립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다음, 각 단락을 요령 있게 전환하고 배치함으로써 공간 간의 조화로운 연결성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논의를 돕기 위해 단락별로 언급되는 공간과 경물을 순서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³¹⁾

- ① 상악산(上嶽山), 금수산(錦繡山), 구담(龜潭), 백운동(白雲洞), 상악폭(上嶽瀑), 구담(龜潭)
- ② 월악산(月嶽山), 연자산(燕子山), 구담, 괴실(槐室), 한미동(閒美洞), 상악폭, 구담
- ③ 청풍부(淸風府), 내매촌(洒邁村) 괴실(槐室), 단구협(丹丘峽), 적소대(積素臺 능), 옥순동(玉筍洞), 화탄(花灘)
- ④ 화탄, 옥순봉(玉筍峯 퇴)
- ⑤ 옥순봉, 채운봉(綵雲峯 퇴)
- ⑥ 현학봉(玄鶴峰 퇴), 오로봉(五老峰 퇴)
- ⑦ 설마동(雪馬洞), 오로봉, 구봉(龜峰 퇴), 채운봉, 현학봉
- ⑧ 구담, 채운봉, 오로봉, 가은봉(嘉隱峰), 옥순동, 구담
- ⑨ 구담, 설사석(雪獅石 단)
- ⑩ 옥순봉, 구담, 빙곡(氷谷), 구봉, 옥순봉, 중정고(中正阜 능)
- ⑪ 중정고, 다백운루(多白雲樓 능), 단하실(丹霞室 능), 경심정(磬心亭 능), 부정(桴亭 능)
- ⑫ 단구협, 채운봉, 운담(雲潭 능), 운한봉(雲漢峰 능), 서운장(瑞雲嶂 능), 혼원벽(渾元壁 능), 동선장(銅仙掌 능), 금강장(金剛障 능), 영지장(靈芝嶂 능)
- ⑬ 구봉, 반도석(返棹石 능)
- ⑭ 반도석, 구봉, 혼원벽, 동선장, 금강장, 영지장
- ⑮ 운한봉, 서운장
- ⑯ 다백운루, 옥순봉, 운한봉, 적소대, 오로봉, 혼원벽, 금강장, 동선장, 전두석(轉斗石 능)
- ⑰ 가은성(可隱城), 옥천암(玉泉菴), 풍패석(風珮石 능), 토정조대(土亭釣臺)
- ⑱ 어학동(魚鶴洞 능), 가은성(嘉隱城 능)
- ⑲ 어학동, 보화대(寶花臺 능), 창하정(蒼霞亭 단), 구담, 서운장, 오로봉, 강선대

31) 명명한 사람이 명시된 경우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능’은 능호관 이인상, ‘퇴’는 퇴계 이황, ‘담’은 단릉 이윤영, ‘환’은 한정당(閒靜堂) 송문흠, ‘월’은 월곡(月谷) 오원(吳瑄)이다.

(降仙臺), 장회탄(長淮灘)

- 20 장회탄, 설마동, 한미동, 어학동, 설마동
- 21 단구협, 청로석(靑鷺石 단), 강선대
- 22 강선대, 난가대(爛柯臺 능), 탁필봉(卓筆峰 능), 연화봉(蓮花峰 능), 맥선허(麥仙墟 능)
- 23 상악산, 강선대, 이호대(二皓臺), 석주(石柱), 석주탄(石柱灘), 맥선허
- 24 맥선허, 이호대, 운하장(雲霞嶂 한)
- 25 맥선허, 운하장, 부용성(芙蓉城 능), 예주(藥珠 한), 군옥봉(羣玉峰 월), 운하장
- 26 운하장, 군옥봉, 연자산, 적성산(赤城山)
- 27 옥순봉, 어학동, 강선대, 부정

동아시아 산수기에서 단락별로 공간을 서술하고 이를 하나의 제목 아래 포괄하는 형식의 글쓰기는 당대(唐代) 유종원(柳宗元)의 산수기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이후 만명(晩明) 시기에 이르러 더욱 유행하였으며, 조선 후기 산수기에서도 역시 성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조합화(組合化)’ 방식이라 지칭하였으며, ‘소기’라는 제목을 표방한 작품에 이러한 형식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였다.³²⁾ 18세기 사군을 대상으로 하는 산수기로 시선을 좁혀 보아도 이러한 형식의 작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조귀명(趙龜命)의 <추기동협유상(追記東峽遊賞)>이나 남유용(南有容)의 <동유소기(東遊小記)>는 전형적인 조합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³³⁾ <구담소기>가 ‘소기’라는 제목 아래 단락을 나누어 구담의 풍광을 담아낸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한문 산문과 같이 줄글로 이어 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단락을 나누어 산수를 묘사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이러한 형식을 택하면 단락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특별히 일관적인 논리 없이도 공간의 정경이나 그와 관련된 일화와 추억을 자유롭게 스케치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럼으로 말하면 커다란 한 폭을 그리는 대신 여러 폭으로 이루어

32)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체 유키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217~218면; 정우봉, 『조선후기 유키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107~110면.

33) 趙龜命, 『追記東峽遊賞』, 『東谿集』 卷2; 南有容, 『東遊小記』, 『雷淵集』 권14.

진 병풍을 그리는 것과 같다. 병풍 그림에서는 각 폭에 담기는 개별 공간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폭과 폭 사이의 긴요하지 않은 부분은 비워둘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생략하고 싶은 것을 생략하기에 용이한 것이다. 이는 구담처럼 변화가 두드러지는 복잡한 공간을 묘사하기에 이점이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담소기>는 이처럼 개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공간의 조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를 변용하고 있다. 이는 우선 한 단락에 한 가지 경물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물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서 단락별로 언급되는 경물을 열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 <구담소기>에서는 한 단락 안에서 여러 공간과 경물을 거론하며 이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내는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보통의 조합식 산수기에서 개별 단위마다 한 공간을 초점화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타 조합화 방식의 산수기와 견줄 때 <구담소기>에서는 단락 사이의 유기성 또한 훨씬 더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조귀명의 <추기동협유상>과 남유용의 <동유소기>는 별행 처리된 소재목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조합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독립성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구담소기>에는 소재목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락을 전환할 때 앞 단락의 마지막 구절과 다음 단락의 첫 구절이 맞물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단락 간의 유기성이 강하게 감지된다. 즉, 새로운 공간으로 시선을 이동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간 사이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 단락③→④ 전환 부분

강물이 그 아래서 어지러이 섞여 모래를 흔들고 돌에 부딪치며 쇠연(灑然)히 슬피 울며 옥순동(玉筍洞) 어귀를 에워싸니, 화탄(花灘)이라 한다.

화탄을 돌아 오른쪽으로 가면 비랑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세간에 도산(陶山) 이선생(李先生)의 글씨라 전한다.³⁴⁾

34) “江水灑于其下，淘沙擊石，灑然悲鳴，鎖斷玉筍洞門者曰花灘。// 循花灘而右，石崖上刻丹丘洞門四字，世傳爲陶山李先生書。”

뿐만 아니라 <구담소기>는 전체적인 구성의 측면에서도 공간들의 관계를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점의 이동에 따라 변모하는 산수의 형상을 숨써 있게 묘사하는 것은 이인상 산수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³⁵⁾ <구담소기>에서는 시점의 이동에 따른 풍경의 변화가 구성의 차원에도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구담소기>는 다음과 같이 강이 굽어지면서 강산의 면모가 판연히 달리 보이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구담 일대의 공간을 나누어 묘사하고 있다.

[16] (….) 그러므로 못 가운데의 작은 바위에 전두(轉斗)라고 이름을 표하였다. 이곳을 지나면 강산이 비로소 한번 변한다.³⁶⁾

[20] (….) 샘물이 강류와 합하는 것이 셋인데, 한미동(閑美洞), 어학동(魚鶴洞), 설마동이다. 여기에 이르면 강산이 또 한 번 변해 밝고 광원(曠遠)하여 사모할 만하다.³⁷⁾

[26] (….) 들으니 섬호(蟾湖) 민 선생(閔先生)께서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면서, “노두(老杜)가 ‘못 신선 근심 없이 / 봉래산으로 내려오네’라고 한 말이 여기와 방불하다”라며 탄복했다고 한다. 이곳에 이르러 강산은 다시 한 번 변한다.³⁸⁾

이처럼 강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공간을 삼분하여 [16], [20], [26]에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서술을 차례로 일단락한 뒤, 최종적으로 이 세 번의 변화를 종합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상의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7] 구담의 강산은 모두 세 번 변한다. 옥순봉 한 굽이는 청화(淸和)하고 영명(靈明)하여 사람의 도(道)에 가깝고, 어학동(魚鶴洞) 한 굽이는 그윽하고 오

35) 주석 6) 참조.

36) “故標名潭中之小石曰轉斗。過此則江山始一變。”

37) “凡泉水合江流者三：爲閑美洞，爲魚鶴洞，爲雪馬洞，而至此而江山又一變，明遠可慕。”

38) “聞蟾湖 閔先生泛舟過此，歎曰：‘杜老所謂“羣仙不愁思，冉冉下蓬壺者近之！”至此而江山又一變矣。”

묘하고 변화하여 신(神)의 도에 가깝고, 강선대(降仙臺) 한 굽이는 탕일(宕逸)하고 빛나 신선의 도에 가깝다. 10리를 오르내리며 그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가 돌아와 실다운 이치를 보며 못사람과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은 ‘부정(桴亭)’이라 이름하였다.³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담소기>의 형식과 구성은 공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기본적으로 단형(段形)을 취하여 단락별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담의 풍경을 자유롭게 묘사하면서도, 각 풍경을 분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풍경들이 조화되며 이루는 전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하여 단락의 전환과 구성에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식과 구성에는 조화를 중시하는 작가의 미적 지향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IV. 구담에 관한 기억과 기대

<구담소기>는 특정한 시점에 구담을 여행하고 기록한 글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구담이라는 공간을 담아낸 글이다. 이로 인하여 <구담소기>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게 된다.

과거의 기억 중에는 구담과 관련된 역사적 기억과 개인적 추억이 혼재하는데, 이인상은 구담의 공간과 경물을 끊임없이 호명하고 명명함으로써 이러한 기억들을 환기하고 있다. 곧, 구담의 정경에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을 연관 짓는 방식을 통하여 구담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경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다른 산수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구담소기>는 상당히 많은 경물에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명하는 방식에서도 독특한 면이 있다. 흔히 자신의 유람을 기념하기 위해 경물에 자기의 성이나 관직을 붙이거나 불교와 관련된 명칭을 비판하고 이를 유교적 명칭으로 바꾸는

39) “龜潭江山凡三變：玉筍一曲，清和靈明，近乎人道；魚鶴一曲，幽眇變化，近乎神道；仙臺一曲，宕逸絢耀，近乎仙道。上下十里，窮極其變，而返觀于實理，與衆同憂樂者，名之曰桴亭。”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인상은 구담을 다녀갔던 선인(先人)들이 붙인 이름을 존중하여 수용하거나 그들을 기념하는 이름을 새로이 지어 붙임으로써 이 공간에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고 있다.

퇴계 이황과 삼연 김창흡은 단양 유람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인상은 이들이 경물에 붙인 명칭이나 경물을 소재로 지은 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들의 정서와 심미의식을 함께 향유하고 있다. 예컨대 단락¹³에서는 이황의 시가 새겨진 바위에다 시의 내용과 관련된 이름을 부여하는 모습이 보인다.

13 배가 구봉(龜峰)으로 접근하면 가지런하고 빼어나 기달 만한 바위가 있는데, 위에 퇴옹(退翁)의 시가 새겨져 있다.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碧水丹山界,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	淸風明月樓.
선인(仙人)을 기다리지 못하여	仙人不可待,
슬피 홀로 배 타고 돌아가네.	悵悵獨歸舟.

나는 이 때문에 그 바위를 반도석(返棹石)이라고 이름하였다.⁴⁰⁾

그뿐만 아니라 이인상은 이윤영, 송문흠 등 절친한 벗들이 경물에 부여한 명칭을 언급함으로써, 구담의 정경에서 개인적인 추억을 상기하기도 한다.

14 구담 안의 바위는 대개 은은히 곱어 옆드린 게 마치 거북 모양 같은데, 배가 그 등줄기를 다닌다. 봉우리 기슭의 바위는 대부분 우뚝하고 희며 짐승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배로 둘러보기 좋다. 이윤지(李胤之)가 그 하나를 설사석(雪獅石)이라고 이름하여 여러 바위 가운데 으뜸으로 여기는데, 강산의 기세를 도와 조석으로 구름 위로 솟아있기 때문이다.⁴¹⁾

40) “舟近龜峰，有石整秀可倚，上刻退翁詩曰：‘碧水丹山界，淸風明月樓。仙人不可待，悵悵獨歸舟。’余爲之名其石曰返棹。”

41) “潭中之石多隱隱蟠伏如龜形，舟行其背；峰趾之石多磊落皓白作獸形，宜繞舟而觀。李子胤之名其一曰雪獅，以長衆石，蓋助江山之氣勢，朝夕出雲。”

- ㉔ 맥선허의 뒤쪽 산은 모두 작은 바위인데 한데 모여 화살촉 모양을 이룬다. 그 빛깔이 은은하여 마치 은이 빛나고 수운이 솟아나는 듯하며 구름이 피어나고 노을이 질게 긴 듯하다. 송사행이 일찍이 이호대(二皓臺)에서 바라보고 감탄하며 구경하고는 잠시 후에 운하장(雲霞嶂)이라고 이름하였다. 배로 유람하지 않으면 그 묘미를 다 알 수 없다.⁴²⁾

<구담소기>에서 이인상은 이처럼 선대의 인물과 친애하는 벗들을 구담이라는 공간과 결부시키면서 공간에 담긴 기억을 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구담에서 살아가고 싶은 삶에 대한 기대 또한 드러내고 있다. 많은 산수기가 유람객으로서 경험한 과거를 말하는 것과 대조하면 자못 이채롭다. 다음 대목에서 그는 구담에서 보낼 조출하고 한가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구담을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㉕ 중정고의 동쪽에 작은 시냇가 있고 시냇가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장차 꽃을 심어 사계절을 드러내고 국화를 심어 술을 빚어 손님을 기쁘게 하고 닳나 나무를 심어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중정고에 기대고 물을 마주하여 기둥 열 개의 작은 집을 짓고, 경쇠 같이 굽혀 누각을 만들어 여러 봉우리를 들이고는 다백운루(多白雲樓)라 이름하고, 그 동쪽 방을 단하실(丹霞室), 서쪽 정자를 경심정(警心亭)이라 이름하고, 강 가운데에 배를 띄워 부정(桴亭)이라 이름하여 봉우리와 못의 기이한 변화를 구경하였다.⁴³⁾

그는 이처럼 사적인 생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 구담에서 자신이 살아갈 사회적 삶에 대한 방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가 밝히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가 했던 고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차 언급하였듯 이인상은 부정을 타고 구담을 보다가 느낀 바가 있어 <구담소기>를 지었다는 말로 이 글의 창작 동기를 밝혔다. ‘느낀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 <부

42) “仙墟後嶂皆細石，束成如箭鏃，其色隱隱，如爛銀潑汞，而雲蒸而霞蔚。宋土行嘗在二皓臺，望見歎賞，移時，名之曰雲霞嶂。非舟游，不能盡其妙。”

43) “中正阜之東有小溪，溪上有小園，將種花以記四時，種菊爲酒以娛賓，種棗作書以通情。依阜面水而築小屋十楹，磬折爲樓，以納衆峰，名之曰多白雲，名其東室曰丹霞，西亭曰警心，中江泛舟，名之曰桴亭，以觀峰潭之奇變。”

정기>의 해당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길을 따라 내려와서 병풍처럼 두른 산을 돌고 돌아 동대(東臺)를 지나 한강 나루에 이르면 도성(都城) 문(門)이 지척에 있어 하루면 용정(龍頂)에 닿는다. 물을 거슬러 올라 삼도(三島)를 지나 정연(亭淵)을 거쳐 오대산의 수원(水源)까지 가는 데는 열흘이 걸린다. 그 빠름은 세상의 티끌에 날로 가까워져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 더딤은 세상의 티끌에서 벗어나 몹시 고상하여 문득 돌아갈 것을 잊게 만든다. 한가하게 오르내리면서 가지도 오지도 않고서 그 빠름을 근심하고 그 더딤을 근심하니, 나의 이 마음은 또한 무슨 마음인가? 차라리 운루에 머물러 다시는 배를 띄우지 말고 그 일정함을 따르고 그 고요함을 지켜야 할 것인가?

지난해 배를 띄워 언덕을 지나갈 때에는 못 산들이 모두 엄중하더니, 올해 부정을 띄워 여울을 내려가매 못 산이 모두 바뀌어 다만 하나의 산만이 내 마음을 슬프고 기쁘게 한다. 아아! 강산의 맑고 탁함이나 개고 흐림 역시 사람 마음의 슬픔과 기쁨에 관계되는 것일까? 아아, 동정(動靜)이 무상하여 의탁하는 데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늘상 운루에 살 수도 없을 뻔더러 부정을 타고 멀리 은둔할 수도 없는 것일까? 내가 구담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 <구담소기(龜潭小記)> 28단(段)을 짓고 거기에 시 38수를 붙여 동호인(同好人)에게 보인다.⁴⁴⁾

이 대목에서 이인상은, 한강으로 내려가 세상의 티끌에 섞여들지도 못하고 오대산의 수원(水源)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티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지도 못한 채 망설이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심회를 투사함으로써 그곳을 속세와 초월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를 적실하게 짚은 것이다.⁴⁵⁾ 그

44) “然龜潭上下十里皆好峰，非浮家泛宅，不可以窮其勝，而雲樓只點一面，見其靜，不見其動；見其常，不見其變。目力有窮，而心有所不通，即龜潭又增余之悲矣。余將伐木東筏，四方八尺，中卓一柱，架以五樑，覆以草茅，名之曰桴亭。每於暇日，下樓命少僮，運篙前江，溯流緩棹，則左右遞迎者，皆燕子山·赤城山諸峰也。(……) 然從流而下，繚繞屏山，泛于東臺，至于漢津，則都門已近，一日便至龍頂矣。溯流而上，擊汰于三島，沿洄于亭淵，窮源于五臺，則十日始可至矣。其疾也去塵日近，而更無去路矣；其遲也絕地甚高，而便令人忘返矣。容與上下而莫往莫來，憂其疾而又憂其遲者，余又何心哉？余寧臥起雲樓，而不復理楫，循其常而守其靜耶？前年乘舟改岸，衆山俱重，今年運桴下灘，衆山皆移，只一山而使余心而悲喜。嗚呼！江山之清濁舒慘，亦有關於人心之哀樂耶？嗚呼！動靜無常而隨遇而變者，人情也，即雲樓不可以恒居，桴亭不可以長住耶？余觀龜潭而竊有所感焉，遂作『龜潭小記』二十八段，而係之小詩三十八首，以示同好者。”李麟祥，『桴亭記』，『凌壺集』卷3；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116~117면.

45) 김수진, 앞의 논문, 2012, 140~141면.

러나 ‘갈등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그가 구담에 부여하는 최종적인 의미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부정기>에서 변민과 갈등으로 자문한 것에 대해, <구담소기>에서 그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담소기>는 일견 선계(仙界)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묘사로 점철된 글처럼 보인다. 이인상은 구담에 세운 누각에 ‘다백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부터 탈속 지향을 드러내고 있으며,⁴⁶⁾ 그밖에 구담의 여러 경물에도 동선장(銅仙掌), 금강장(金剛障), 영지장(靈芝嶂), 난가대(爛柯臺) 등의 이름을 부여하여 선가(仙家)의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단양에 대해 선계(仙界)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실상 드물지 않은 일이다.⁴⁷⁾ 그러나 이렇게 산수를 신선 세계로 형상화하는 중에도 드문드문 사(士)로서의 의식이 간취되고 있는바, 이 점에서 이인상은 앞으로 구담에서 살아갈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인상은 구담의 산수에서 유가적 군자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구봉의 산세를 묘사하면서 “귀인(貴人)이 직위에 있으면서 그 덕을 측량할 수 없는 것만 같다. 홀을 들고 관을 쓰고 검을 든 듯 정제되고 삼엄하다”⁴⁸⁾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혹 단편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구담소기>의 마지막 단락이 다음과 같이 맺어지는 것에 유의하면 소홀히 넘기기 어렵다.

㉓ 구담의 강산은 모두 세 번 변한다. 옥순봉 한 굽이는 청화(淸和)하고 영명(靈明)하여 사람의 도(道)에 가깝고, 어학동(魚鶴洞) 한 굽이는 그윽하고 오묘하고 변화하여 신(神)의 도에 가깝고, 강선대(降仙臺) 한 굽이는 탕일(宕逸)하고 빛이 나 신선의 도에 가깝다. 10리를 오르내리며 그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가 돌아와 실리(實理)를 보며 못사람과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을 ‘부정(桴亭)’이라 이름하였다.⁴⁹⁾

46) ‘다백운루’라는 이름은 양나라의 도홍경(陶弘景)이 은거하며 지은 시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어 시를 지어 답합니다(詔問山中何所有, 賦詩以答)』에서 취한 것이다. 다음은 이 시의 전문이다. “산중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 산마루에 흰 구름이 많습니다. / 다만 홀로 즐거워할 뿐 / 임금께 보내드리지 못합니다”(山中何所有, 嶺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寄君) 김민영, 앞의 논문, 2012, 73면 참조.

47) 이태희, 앞의 논문, 2015, 136~149면.

48) “貴人在位而莫測其德. 圭笏冠劍, 整齊森嚴.”

이 대목의 바로 앞 단락에 이르기까지 이 글은 구담 산수를 오르내리며 보는 극도의 변화를 묘사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구담의 강산에서 ‘사람의 도’와 ‘신의 도’, ‘신선의 도’를 모두 보고 돌아와 중국에는 ‘실리(實理)’를 보며 못사람과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을 ‘부정’의 성격으로 규정하며 글을 맺고 있다.

주지하듯이 ‘실리(實理)’는 유가적 뉘앙스가 강한 어휘로서 흔히 도불(道佛)의 허랑함과 대비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못사람과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한다[與衆同憂樂]’는 것은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 곧 위정자로서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강렬하게 환기시킨다. 요컨대 이는 <부정기>에서 스스로 제기한 ‘세속과 초월 사이의 변민’에 대하여, 산수 감상을 바탕으로 삼되 유가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현실 속 사(士)로서의 책임의식을 견지하겠다는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인 것이다. 그가 ‘느낀 점이 있어 동호인들에게 보인다’고 하였을 때 동호인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느낀 점이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본고는 <구담소기>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인상의 미의식과 삶의 자세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산수기라는 문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인상은 중화(中和)를 지향하는 자신의 미적 취향에 부합하고 속세와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담을 사랑하였다. 그는 구담에 누각을 지은 뒤, 부정을 타고 이동하며 바라 본 구담 및 구담과 관련된 기억과 기대를 <구담소기>에 담아내었다. <구담소기>는 특정한 순간의 여행 체험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을 통해 경험한 공간을 다룬 글이다. 당대 유행하던 조합화 형식과 유사하게 단형(段形) 구성을 취하여 구담의 곳곳을 자

49) “龜潭江山凡三變：玉筍一曲，清和靈明，近乎人道；魚鶴一曲，幽眇變化，近乎神道；仙臺一曲，宕逸絢耀，近乎仙道。上下十里，窮極其變，而返觀于實理，與衆同憂樂者，名之曰桴亭。”

유로운 필치로 묘사하면서도, 긴밀한 단락 전환과 구성을 통해 공간 간의 조화와 연결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구담소기>에서 이인상은 경물을 호명하고 명명하는 방식을 통해 구담과 관련된 역사적 기억과 개인적 추억을 환기하는 한편, 구담에서의 조출한 생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士)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생각하면서 구담에서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구담을 단순한 유람지가 아니라 자신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산수기는 여행 체험을 기록한 글이거나, 남에게 유람 공간의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거나, 산수를 평가하는 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담소기>는 기행문도 지리지도 비평문도 아니며,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에 새로 터를 잡은 작자가 그 공간과 관련된 기억과 기대를 포개어 공간을 자기화하고 있는 글이라는 바로 이 점에서 고유한 개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좁은 견문으로는 산수기에서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 글은 많지 않은 듯하며, 이는 산수기라는 문체에 대한 종래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구담소기>는 이인상의 미의식과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작품일 뿐 아니라 향후 산수기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개성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李麟祥, 『凌壺集』, 한국문집총간 225.
李麟祥, 『雷象觀藁』, 후손가 소장본.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218.
李胤永, 『丹陵遺稿』, 한국문집총간 속82.
趙龜命, 『東溪集』, 한국문집총간 215.

이인상, 박희병 역, 『능호집』 상·하, 돌베개, 2016.

2. 논저

- 강혜선, 『이인상 그룹의 교유양상과 시서화 활동 연구』, 『한국한시연구』 24, 한국한시학회, 2016, 187~215면.
김민영, 『능호관 이인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김수진, 『능호관 이인상의 문학과 회화에 대한 일고찰—시대인식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91~320면.
_____, 『가장본 『뇌상관고』 소고』, 『한국문화』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65~86면.
_____, 『능호관 이인상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박경남, 『단릉 이윤영의 『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419~449면.
_____, 『이인상의 『관매기(觀梅記)』 연구』, 『한국학연구』 4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59~87면.
박희병, 『한국산수기 연구-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210~232면.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백승호, 『단호 그룹 문인들의 애사(哀辭)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301~328면.
안대회, 『조선 후기 小品體 遊記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211~243면.
유승민, 『凌壺觀 李麟祥 書藝와 繪畵의 書畵史의 位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6.

- 이태희, 『조선시대 사군 산수유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5.
- 정우봉, 『조선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102~137면.
- 진필상,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A Study of Yi In-sang's "A Small Record on Gudam"

Kim, Min-Yeong

"A Small Record on Gudam" is Yi In-sang's record on Gudam, a picturesque place in Danyang. Yi sincerely loved Gudam and had dreamed to live a sequestered life in the area from early on. He eventually built a pavilion of his own there, which was named Dabaekun, and wrote the record. He loved Gudam in that he thought the place suited his aesthetic sense of balance and was adequately far from the secular world.

Unlike typical nature travelogues, "A Small Record on Gudam" does not have a certain time-frame. This is because, for Yi, Gudam was not a place for just one time excursion but a place to experienc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with deep affection. To effectively depict each part of the place, he divides this record into paragraphs like many landscape records in the 18th century. Still, he focuses on describing the overall balance and harmony of the place at the same time.

In this writing, Yi recalls memories of historical figures and his own friends with regard to Gudam. Moreover, he eagerly looks forward to the future in the place, not only his private life but also his social responsibilities. It is a unique landscape record, because it goes beyond ordinary travelogues and mixes up all these memories and anticipation about Gudam, imbuing the place with special significance and revealing his own affection towards it. It may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genre of landscape record.

keywords: A Small Record on Gudam, Neunghogwan, Yi In-sang, Landscape Records.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

